

IBKS Spot Comment

자동차/2차전지

이현욱

02) 6915-5659

hwle1125@ibks.com

[자동차/2차전지]

검색은 먼저 반등했고, 2차전지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전기차 글로벌 검색량 79% 증가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관련 검색량이 전반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Google Trends 기준으로 1월 2일 대비 3월말 기준 전기차 관련 글로벌 검색량은 +7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233%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일본 +170%, 중국 +156%, 독일 +96%, 프랑스 +85% 등 주요국에서 높은 관심 확대가 확인된다.

물론 검색량 증가가 실제 판매량과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의 고유가 환경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비 부담을 부각시키면서 전기차의 경제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이번 검색량 증가가 즉각적인 전기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다시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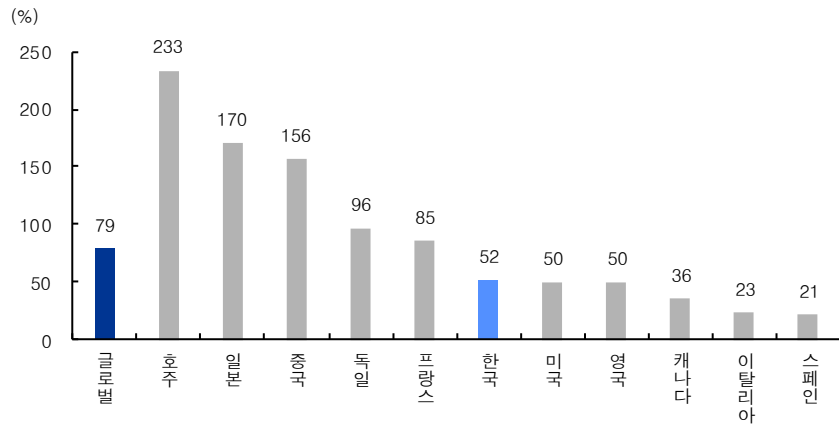
글로벌 완성차 판매 70% 지역, 전동화 우호적인 흐름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의 70%, 전기차 판매량의 86%를 차지하는 11개 핵심 국가를 보면, 2026년 2월 누적 완성차 판매는 1,308만대(-3.1% YoY), 전기차 판매는 270만대(-0.7% YoY)로 모두 감소했지만 전기차 침투율은 20.6%(+0.5%p)로 상승했다. 중국은 40.7%의 높은 침투율을 유지했고, 유럽은 전반적인 회복세가 나타난 반면, 미국은 유일하게 침투율이 6.8%(-3.2%p)까지 하락하며 부진했다. 다만 의미 있는 점은 이들 11개국 전부에서 전기차 관련 검색량이 증가했다는 점으로, 실제 판매와의 시차는 존재하더라도 소비자 관심 측면에서는 전동화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업황 바닥 통과 신호, 2차전지를 다시 봐야할 때

전기차 검색량 증가와 침투율 상승 등 수요 측면의 바닥 통과 신호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2차전지 업종 주가는 아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추정 매출액 기준으로 2023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하는 기업들조차, 시가총액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표2.를 보면, 코스모신소재의 2026년 매출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0.1%)까지 회복되지만, 시가총액은 여전히 -70.7%, 솔루스첨단소재는 매출 +60.2%에도 시가총액 -55.4%, 성일하이텍은 매출 +16.8%에도 시가총액 -54.8%다. 비록,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2차전지 섹터 전반의 멀티플이 과도하게 오른 점도 있지만, 이 갭이 언제 축소될지는 결국, 수익성 회복, 고객사 재고 정상화, 출하량 반등, 정책 가시성까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업황 바닥 통과와 주가 정상화 사이의 시간차가 남아 있는 구간으로 판단한다.

그림 1. 중동 사태 이후 국가별 전기차 검색량 증가율



자료: Google Trends, IBK투자증권
 주: 2026년 1월 2일 대비, 3월 말 증가량 기준

표 1. 글로벌 주요국 완성차, 전기차 판매량 및 전기차 침투율

(단위: 만 대, %)

구분	누적 완성차 판매량			누적 전기차 판매량(EV+PHEV)			전기차 침투율		
	YTD(25.02)	YTD(26.02)	YoY(%)	YTD(25.02)	YTD(26.02)	YoY(%)	YTD(25.02)	YTD(26.02)	YoY(%)
글로벌	1,351	1,308	-3.1	272	270	-0.7	20.1	20.6	0.5
중국	437	393	-9.9	174	160	-8.2	39.9	40.7	0.7
미국	233	229	-1.8	23	16	-33.5	10.0	6.8	-3.2
독일	46	44	-2.6	11	13	24.3	23.7	30.2	6.6
영국	26	27	3.7	7	9	17.0	28.5	32.1	3.6
프랑스	31	28	-9.2	6	8	32.2	19.7	28.7	9.0
이탈리아	30	33	8.8	3	5	89.9	8.5	14.8	6.3
한국	23	24	2.9	2	4	140.3	7.8	18.2	10.4
스페인	19	20	5.2	2	4	52.6	12.3	17.9	5.6
호주	18	18	-0.9	2	3	60.4	10.5	17.0	6.5
캐나다	24	23	-5.9	3	3	-9.4	11.9	11.4	-0.4
일본	78	76	-2.9	2	2	29.4	2.3	3.1	0.8

자료: Marklines, SNEResearch, IBK투자증권/ 위 11개 국가가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70% 차지, 전기차 판매량은 86% 차지

표 2. 2차전지 주요 기업별 23년 6월말 대비 26년 회복률(2026년 컨센서스 기준)

(단위: 십억원, %)

구분	시가총액			매출액		
	2023.06.30	2026.03.31	23년 6월말 대비 수익률	2023	2026(E)	Vs. 2023
LG에너지솔루션	129,402	92,313	-28.7%	33,745	27,003	-20.0%
삼성SDI	46,523	32,879	-29.3%	21,437	15,056	-29.8%
SK이노베이션	14,786	18,376	24.3%	77,288	75,786	-1.9%
포스코퓨처엠	27,345	18,101	-33.8%	4,760	3,038	-36.2%
에코프로비엠	24,353	18,803	-22.8%	6,901	2,931	-57.5%
엘앤에프	8,806	5,803	-34.1%	4,644	2,797	-39.8%
코스모신소재	5,726	1,678	-70.7%	630	629	-0.1%
에코프로머티	13,004	4,727	-63.6%	953	1,022	7.3%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223	2,168	-2.5%	809	907	12.1%
솔루스첨단소재	1,392	621	-55.4%	429	688	60.2%
SK아이이테크놀로지	6,902	1,738	-74.8%	648	247	-61.9%
더블유씨피	2,460	479	-80.5%	305	239	-21.5%
SKC	3,696	3,457	-6.5%	1,493	2,829	89.4%
대주전자재료	1,494	1,952	30.7%	185	310	67.7%
성일하이텍	1,620	733	-54.8%	247	289	16.8%
구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23	2026(E)	Vs. 2023	2023	2026(E)	Vs. 2023
LG에너지솔루션	1,486	1,270	-14.6%	4.4	4.7	0.3%p
삼성SDI	1,545	-429	적자 전환	7.2	-2.8	-10.1%p
SK이노베이션	1,287	1,820	41.5%	1.7	2.4	0.7%p
포스코퓨처엠	36	79	121.3%	0.8	2.6	1.9%p
에코프로비엠	156	82	-47.2%	2.3	2.8	0.6%p
엘앤에프	-222	131	흑자 전환	-4.8	4.7	9.5%p
코스모신소재	32	22	-31.3%	5.1	3.5	-1.6%p
에코프로머티	9	108	1,126.9%	0.9	10.5	9.6%p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12	-41	적자 전환	1.5	-4.5	-5.9%p
솔루스첨단소재	-73	-34	적자 지속	-17.0	-5.0	12.0%p
SK아이이테크놀로지	50	-201	적자 전환	7.7	-81.3	-89.1%p
더블유씨피	46	-44	적자 전환	15.2	-18.3	-33.5%p
SKC	-214	-131	적자 지속	-14.3	-4.6	9.7%p
대주전자재료	6	34	449.1%	3.4	11.0	7.6%p
성일하이텍	-8	-1	적자 지속	-3.4	-0.4	3.0%p

자료: Fnfinance, IBK투자증권/ 하이라이트 기준은 1) 매출액 기준 회복세 대비 수익률 저조 기업, 2) 영업이익 및 OPM 개선 기업

표 3. 주요 섹터별 주가 수익률 비교(2026년 수익률은 3월 말 기준)

IBKS 섹터구분	25년 수익률(연간)	26년 수익률(YTD.)	25년 수익률 순위	26년 수익률 순위
증권	70.2%	44.4%	5	1
반도체와반도체장비	159.0%	33.6%	2	2
전자장비와기기	85.3%	25.8%	3	3
코스피 통신	12.7%	22.9%	17	4
자동차와부품	35.2%	22.9%	9	5
코스피	75.6%	19.9%	4	6
2차전지	14.8%	17.3%	16	7
코스닥 제약	40.1%	16.8%	8	8
소매(유통)	26.7%	15.9%	12	9
전자제품	9.5%	14.4%	19	10
석유와가스	47.1%	14.2%	7	11
기계	188.4%	14.0%	1	12
화학	33.0%	12.9%	10	13
은행	55.5%	12.8%	6	14
게임엔터테인먼트	-11.8%	7.6%	21	15
디스플레이	6.3%	4.3%	20	16
코스피 음식료 · 담배	20.7%	3.3%	13	17
코스피 제약	12.1%	-3.7%	18	18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8.1%	-6.8%	15	19
K콘텐츠	20.2%	-9.9%	14	20
양방향미디어와서비스	31.9%	-19.4%	11	21

자료: Fnguide,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